

교양교육의 미래 영향 요인 분석 : A 대학 교양전담기관 교수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홍 성 연**

목 차	
I. 서 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방법	

국문초록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수들은 대학의 교양교육 변화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이 교양교육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교양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는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수들이 10년 뒤 대학 기초 교양교육의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7명의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수들이 기초교양교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고, 32명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대학에서 이러한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과 이것이 소속 대학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통해 해당 요인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변화/발생 가능성과 대학에 미칠 영향력을 축으로 4사분면에 각 요인들을 배치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교육의 확대’, ‘학생 특성 변화’, ‘기초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교양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교수 역할 변화’, ‘학사제도 유연화’, ‘기초교양교육 질

* 이 논문은 2023년 2월 아주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기초교양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개선했던 것으로, 제1회 경기대·단국대·아주대 공동학술대회(2023.9.8.)에서 요약·발표됨

**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교수, hsy06@ajou.ac.kr

관리 확대’,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요구 변화’ 등 8개 요인과 35개 하위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 중 변화/발생 가능성과 소속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클 것이라고 인식된 요인 ‘학생 특성 변화’였다. ‘온라인 교육의 확대’, ‘기초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교양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기초교양교육 질 관리 확대’,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요구 변화’는 소속 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인식되었다. 총 35개 하위 요인 중 변화/발생 가능성에 대해 교수들의 의견이 일치된 요인은 16개였으며, 이 중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된 것은 14개였다. 교양교육 전담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교수들의 의견이 일치된 요인은 24개였으며, 이 중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된 것은 19개였다. ‘학생 특성 변화’, ‘기초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교양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등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요인으로, ‘기초교양교육의 질 관리 확대’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요인으로, ‘온라인 교육의 확대’, ‘교수 역할 변화’, ‘학사제도 유연화’,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요구 변화’는 비교적 소극적 대응이 필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대학의 기초교양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과 연구의 한계를 결론에 추가하였다.

[주제어] 기초교양교육,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양교육의 미래, 대학교육

I. 서 론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대학별로 비교적 동질적이었던 학생 특성은 학령인구 감소, 입시 방법의 다양화,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편입생 및 성인학습자 증가 등으로 인해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 간 요구와 수준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신입생의 기초학력은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더불어, 급격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지식 생성 주기의 단축, 대학 학위의 가치 하락과 고등교육을 대체하는 교육기관의 등장 등은 대학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테크놀로지 활용이 불가피해지면서 전통적인 대학의 교수학습방법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재정지원을 앞세운 정부의 대학에 대한 변화 압력은 해가 갈

수록 거세지고 있다. 즉, 학생, 재정, 역할, 형태 등 대학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대학은 변화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여러 기관들은 미래 대학 교육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¹⁾ 미래 대학은 대학을 대체하는 교육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종의 교육플랫폼으로 인적, 물적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할 것이고, 에듀테크, 마이크로러닝 등 교육 과정과 교수활동의 변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여정과 학습경험을 관리할 것이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국가·지역·기관 간 교육이동이 더욱 확대되고, 개별화된 온라인 학사지도와 적응형 학습이 강화될 것이다.²⁾ 자유·경쟁에 기초한 대학 운영이나 교수자·공급자·엘리트 중심의 대학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강조되며 대학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나 학습자 중심 교육과 같이 창의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대학의 정보공개나 투자 대비 성과와 같이 책무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등교육 이수자의 확대와 함께 교육성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에는 대학의 다양성과 고등교육의 보편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³⁾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재 대학은 산업 성장기에 적합한 대량의 지식근로자를 양성하던 형태에서 학생별로 개별 로드맵에 따라 적성과 진로에 맞춰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습하는 형태로 교육의 체제를 바뀌어나가는 중이다.

- 1) 백원영·민숙원·윤종혁·김영식,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교육과정과 노동시장 이행』,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19; 서재영·김은영·우선영·임후남·조옥경·최정윤·이상은·한은정, 『뉴노멀 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치 탐색 연구: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21; 유한구·김안국·조희경·주인중·엄미정·차성현,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전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0; 이두휴·오승용·송승훈, 『디지털 전환 대응 포용적 미래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 최동선·김남희·류지은·이상훈·임언·안현용·임정훈, 『미래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 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1.
- 2) 변수연·배상훈·이수정, 『변혁기, 미래 대학교육의 혁신과 발전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
- 3) 서재영 외, 앞의 책, 2021.

특히 전공교육에서는 대학별로 학생의 자기설계전공이 권장되고 전통적인 학문분야에 없던 융합전공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트랙·마이크로전공 등 학생별로 입학 때 선택한 전공 이외에 다양한 전공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는 대학이 늘고 있다. 이러한 전공의 선택 방식과 교육과정의 변화가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가, 개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는 적응형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한 비판과 성찰은 추후에 마땅히 필요하겠지만, 과거 학문 기반의 전공 교육이 산업의 수요와 학생의 요구에 맞춰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더불어 대학교육의 근간이 된다. 지난 10여년 간 교양교육을 선도하는 교수자와 연구자들의 각고의 노력과, 교양교육에 힘을 실어 준 정부의 대학평가 덕분에 많은 대학에서 교양교육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등 고등교육에서 교양교육의 위상이 높아져 왔다. 또한, 여러 개의 교양교육 학술지가 발간되며, 이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양교육의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양교육의 체제와 조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질 관리 등에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으며,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는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⁴⁾ 이는 교양교육 관련 교육정책이 대부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같은 정책 사업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에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어진 과제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교양교육이 교육환경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하는 주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양교육의 발전과 변화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당한 경우 교양교육의 실행 주체들은 의사결정 권한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특히 많은 대학에서 교양교육 전담기구

4) 윤승준·권준원·김수연·김지영·주현재·최예정,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

를 설치하였지만, 조직과 인적 구성에 취약한 상황이다. 교양교육 전담기관의 전임교원 비율은 대학 전체와 비교해서 50%가 되지 않으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은 대학 전체와 비교해서 약 4배에 이른다. 교양교육 전담기관은 대학의 교수 조직 중 전공, 신분, 경력, 역할이 가장 다양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⁵⁾ 이러한 차이는 교양교육 담당 교수 간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동일한 교양교육 전담기관에 소속되어 있어도 기초교육을 담당하는지, 자유학예 교육을 담당하는지, 직급과 경력, 신분의 안정성이 어떻게 되는지, 교양교육 담당 교수로서 정체성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⁶⁾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수들은 교양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교양교육기관에서 교육내용을 연구하고, 설계하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대학 변화와 교양교육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실제 교육의 내용과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교양교육이 담당하는 교육의 내용과 범위가 포괄적인 만큼 전담기관 소속 교수들의 직위, 경력, 전공도 다양하고, 그만큼 이들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교양교육의 미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교양교육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는데 유의미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수들이 10년 뒤 대학 기초교양교육의 변화를 어떻게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수들은 미래 교양교육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둘째,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수들은 상기 요인들이 교양교육에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5) 윤승준 외, 앞의 책, 2019, ix쪽.

6) 한송이·박상훈·이재창, 「교양교육 발전방향에 관한 교원의 인식 탐색」, 『교양교육 연구』, 제16권 제6호,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22, 47~66쪽.

셋째,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수들은 상기 요인들이 소속된 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미래 예측과 미래 연구

미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객관주의는 데이터에, 구성주의는 인간의 인식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해석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미래상이나 비전과 같이 미래를 바람직하게 형상화하는 규범적 관점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중장기 전망’과 같이 희망하고 바라는 미래를 기술하는 것을 미래 비전(future vision)이라고 한다면,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가정하고 여러 자료에 근거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여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을 미래 예측(future forecast)이라 한다.

인간이 미래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입장도 관점에 따라 상이하다. 인과론과 같은 체계적인 방법론에 의해 자연과학처럼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실증주의적 입장, 인간이 미래에 대한 주관적 견해나 시각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해석주의적 입장,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지만 미래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다른 방식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는 현실주의적 입장이 있다.⁷⁾ 교육에서 학령인구감소나 지방소멸 등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 명확한 자료에 기반해 미래의 위기를 예견하는 것은 실증주의 입장에 가깝다. 반면 학령인구감소나 지방소멸 등이 미래 대학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

7) 손현주, 「미래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시론적 연구」, 『미래연구』, 제1권 제1호, 미래학회, 2016, 18~19쪽.

가들의 주관적 견해와 예측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은 해석주의적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두 입장을 절충하여 다양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행위자의 선택에 따라 실현 가능한 여러 미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입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에 교육의 미래는 인간이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의 방향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기도 한다.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실증적 분석과, 연구자나 행위자의 직관이나 자료 해석이 함께 활용된다. 시나리오 기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연구로는 OECD 산하 교육연구와 혁신센터(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 2000년에 진행한 20년 후 학교교육의 미래상을 예측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도래할 2020년 학교 교육을 여섯 개의 시나리오 형태로 예측하였고, 2020년 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이때 제시되었던 시나리오 중 1번인 ‘견고한 관료제적 학교체제’와 2번인 ‘시장 원리 적용 확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⁸⁾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칠 현재와 미래의 환경적 요인을 인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래 대학 교육을 예측할 때 학령인구 감소와 같이 피하기 어려운 영향 요인들을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⁹⁾ 또한, 과정을 분석하는 트렌드분석, 전문가델파이, 교차분석이 있으며, 이를 거쳐 결과에서 단일의 또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제시할 수 있다.¹⁰⁾

미래 연구는 인간에게 미래에 영향을 미칠 현재의 요인과 행동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행위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의

8) 류방란·김경애·이상은·한효정·이윤미·이종태·최항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 한국교육개발원, 2018, 18~20쪽.

9) 최항섭, 「미래연구의 이론과 방법」, 『한국사회』, 제13권 제1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2, 214~215쪽.

10) 최항섭, 앞의 논문, 2012, 215~224쪽.

모습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미래 고등교육의 변화 예측

미래 교양교육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환경변화에 대한 진단은 비슷하지만, 대학의 미래 변화에 대한 시각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즈음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미래 대학은 기술, 제도, 교수학습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측되었다.¹¹⁾ 기술 측면에서 인공지능, 클라우드시스템, 빅데이터, 머신러닝,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등 신기술이 도입되고, 네트워크 기반의 대학 플랫폼을 바탕으로 모바일 정보기기의 활용이 확산되며, 제도적 측면에서 학기제의 유연화나 폐지, 모듈기반교육과정 도입, 자율전공제 도입, 타대학과 학습자원 및 학적 시스템 공유, 나노디그리 도입, 선행학습인정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지며, 교수학습 측면에서 MOOC활용 교육, 플립러닝 확대, 메이커교육 도입, 기업가정신(도전정신) 교육,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 대학교수의 역할 변화 등이 예측되었다. 5년이 지난 현재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상당 부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정부규제 등 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고등교육 이수자의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대학의 변화를 예측한 연구도 있다. 대학의 공공성이 중요하게 강조되며, 환경 개선 등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수도권과 지방 등 균형발전이 화두가 될 것이다. 경제적 변화로 인한 대학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조되고, 4차

11) 권선아·정혜령·양유정, 「4차 산업혁명기반 미래 대학 모형 연구: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8권 제9호,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551쪽.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학의 교육 내용과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융복합 교육과정과 같은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이 나타나고 학습자 중심교육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대학의 책무성이 강화되며 더욱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가 늘고,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대비 성과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되고 구성원의 다양성 확대되면서 성인학습자 등 대학 구성원이 변화하고, 학습과정 및 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¹²⁾

급격한 대학의 변화 속에서 교양교육 분야의 새로운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¹³⁾ 교양교육을 부분적으로 개혁한다면, 현재의 교양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융복합 과목 개발, MOOC 등 확산에 따른 대응,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 운영 개선, 교양교육 실용화에 대한 수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교양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면 새로운 교양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교양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거나 교양교육 중심의 혁신대학 구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데이터, 전문가 인터뷰, 문헌자료 등을 근거로 미래 고등교육과 교양교육의 변화를 예측한다. 그러나 예측된 미래상은 연구자에 따라 사뭇 차이가 있다. 이는 미래 연구가 행위자가 선호하는 관점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이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미래 교양교육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고, 다음 단계는 이 요인이 실제 나타날 가능

12) 서재영 외, 앞의 책, 2021, 95~111쪽.

13) 백승수, 「제4차 대학 혁명과 교양교육의 미래」, 『교양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19~23쪽.

성과 소속 기관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수들의 인식을 묻는 것이다.

1) 교양교육 영향 요인 추출 절차

교양교육 영향 요인을 추출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총 7명의 A대학교 교양교육 전담기관 소속 교수가 ‘10년 뒤 A대학교 기초교양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총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미래 대학교육과 기초교양교육의 변화에 대한 난상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으며,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고등교육의 동향 및 미래예측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와 자료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하였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각자가 공유된 자료를 읽은 것을 전제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브레인스토밍 형태로 포스트잇에 ‘미래 대학 변화의 동인’에 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함께 이를 범주화하고, 모두의 합의 하에 동일한 내용을 합치고,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분류하며 정리하였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군집별로 요인의 이름을 붙이고, 최종적으로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과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는지 점검하였다. 그 결과 총 8개 요인과 35개 하위 요인이 도출되었다.

2)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수들의 인식 분석 절차

교양교육 전담기관 소속 교수들의 교양교육 미래에 대한 예측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개발된 8개 요인과 35개 하위 요인을 토대로 설문을 개발하였다. 35개 하위요인에 대한 변화/발생 가능성과 소속 대학에 미칠 영향력을 묻는 5점 척도의 객관식 설문 총 70문항, 8개 요인에 대한 개방형 질문 8문항, 소속을 묻는 1문항 등 전체 79문항이었다.

개발된 설문은 구글 설문으로 만들어진 후 두 차례에 걸쳐 요인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가 검토하였다. 오해가 있지 않도록 소속 대학에 미칠 영향력에서 소속 대학을 A대학 교양교육 전담기관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문구가 수정되었다.

최종 설문은 A대학 교양교육 전담기관 소속 교수들이 학교에 등록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2022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1주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23.0과 엑셀을 통해 분석되었다. 기술통계, 델파이를 응용한 내용타당도, 수렴도, 합의도 분석, 중요도-수행도 분석을 응용한 요인별 대응 순위 선정 등이 이루어졌다.

2. 연구참여자

미래 교양교육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추출하는 과정 참여한 교양교육 전담기관 소속 교수는 총 7명이었다.

〈표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이름	전공	성별	연령	A대학교에서 교육경력	직위
A	철학	남	50대 초반	14년	전임
B	중국어	여	50대 초반	24년	특임
C	교육학	남	50대 초반	12년	전임
D	교육학	여	40대 후반	12년	전임
E	예술교육	여	40대 초반	3년	전임
F	한국어교육	여	40대 초반	1년	전임
G	한국어교육	여	40대 중반	2년	특임

교양교육 미래에 대한 예측 설문에 참여한 교수는 총 32명(64%)이었다. A대학 교양교육 전담기관에서 기초교양을 가르치는 교수는 원어민 교원을

제외하고 총 50명이다. 담당교과별 설문응답자는 글쓰기 5명(15.6%), 기초 수학·과학 10명(20.0%), 소프트웨어 4명(12.5%),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한국어) 9명(28.1%), 교양(인문/사회/과학) 4명(12.5%)이었다.

3. 연구도구 및 분석

1) 연구도구 개발

교양교육 미래에 대한 예측 설문은 <표 2>와 같이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개발된 8개의 요인과 35개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는데, 하위 요인별로 각 두 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하나는 ‘해당 요인이 약 10년 뒤(2030~35년)에 대학에서 발생/변화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요인이 A대학교 교양교육 전담기관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것으로 모두 5점의 리커르트 척도로 개발되었다. 예컨대, ‘1-1. 기초교양교육에서 온라인과 교실수업이 융합된 블랜디드러닝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적다(1점)에서 매우 높다(5점)까지 5점 척도 중 선택하게 하고, ‘1-1. 기초교양교육에서 온라인과 교실수업이 융합된 블랜디드러닝이 확대가 ○○○○대학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매우 작다(1점)에서 매우 크다(5점)까지 5점 척도 중 선택하게 하였다. 8개 요인에 대한 설문이 끝날 때, 각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묻는 개방형 질문이 주관식으로 제시되었다. 인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응답자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교과 영역을 묻는 질문만 추가되었다.

2) 연구분석 방법

설문결과의 분석은 기술분석, 전문가 내용타당도 분석, 중요도-수행도 분석을 응용한 좌표평면 배치가 이루어졌다.

먼저 SPSS 26을 사용해 기술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델파이에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를 분석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s Validity Ratio: 이하 CVR), 수렴도, 합의도, 긍정 응답수(5점 척도 중 4점 또는 5점) 등을 검증하였다¹⁴⁾. CVR 값은 전문가 패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응답자가 32명이기에 기준값을 0.312으로 하고, 그 이상인 항목을 적절하다고 판별하였다¹⁵⁾. 수렴도는 0에 가까울수록, 합의도는 1에 가까울수록 전문가 간의 의견수렴과 합의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¹⁶⁾. 긍정응답수는 5점 척도 중 4점 또는 5점에 응답한 전문가 수로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인 16명부터 적절하다고 판별하였다.

중요도-수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은 속성별 비교를 통해 다면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법으로¹⁷⁾ 이를 응용하여 각 요인을 4사분면에 배치하고, 발생/변화 가능성과 대학에 미칠 영향력의 대응 순위를 선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미래 교양교육에 영향을 미칠 요인

교양교육 전담기관에 소속된 7명의 교수들이 산출한 10년 뒤 대학 기초 교양교육에 영향을 미칠 요인 8개와 하위 요인 35개는 다음 <표 2>와 같다.

- 14) 강용주, 『델파이 기법의 이해와 적용 사례』, 수시과제보고서, 08-20, 2008.
- 15) 강용주는 Lawshe(1975)를 인용하여 CVR의 최소값을 응답자 수가 30명이면 0.33, 35명이면 0.31이라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응답자가 32명이기에 산술적으로 0.312로 설정하였다. 강용주, 앞의 책, 2008. 7쪽.
- 16) 강용주, 앞의 책, 2008. 8쪽.
- 17) 박노진, 「중요도-실행도 분석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연구-온라인 수능강의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0권 제2호,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9, 329~330쪽.

〈표 2〉 10년 뒤 기초교양교육에 영향을 미칠 요인과 하위 요인

요인	하위 요인
1. 온라인 교육의 확대	1-1. 기초교양교육에서 온라인과 교실수업이 융합된 블랜디드러닝의 확대
	1-2. 기초교양교육에서 전면적인 원격수업 과목의 증가
	1-3. 기초교양교육에서 MOOC 등 교외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 활성화
	1-4. 기초교양교육에서 수업에 에듀테크(AI, AR/VR,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적용 요구 증가
2. 학생 특성 변화	2-1. 입학생의 학습능력 차이 심화
	2-2. 입학생의 전반적인 기초학력 저하
	2-3. 학생 구성(재직자, 편입생, N수 입학생 등)의 다양화
	2-4. 기초교양수업에서 외국인 학생 비율 증가
	2-5. MZ세대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변화 요구 증가
3. 기초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3-1. 대학 기초교육으로서 글쓰기의 필요성과 중요도 증가
	3-2. 대학 기초교육으로서 외국어의 필요성과 중요도 증가
	3-3. 대학 기초교육으로서 SW의 필요성과 중요도 증가
	3-4. 대학 기초교육으로서 수학, 과학의 필요성과 중요도 증가
	3-5.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기초교육의 필수학점 수, 교수방법(개별화 등) 변화
	3-6. 기초교육을 전공교육과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 증가
4. 교양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4-1.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도 증가
	4-2. 교양교육의 보편성과 학술성에 대한 요구 증가
	4-3. 교양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의사소통, 분석력, 창의성 등)에 대한 요구 증가
	4-4. 교양교육에서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교과목 증가
5. 교수 역할 변화	5-1. 교수의 역할이 ‘지식의 전달자’에서 학습을 설계하고, 유도하고, 지원하는 ‘안내자’로 확대
	5-2. 교수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교육 이외의 부분(비교과, 연구, 봉사 등)으로 확대

요인	하위 요인
	5-3. 교수의 신분과 지위가 개선/안정화
6. 학사제도 유연화	6-1. 대학 간에 기초교양 수업의 교류(공동개설 수업, 학점 인정 등) 확대
	6-2. 기초교양교육에서 집중 이수, 시간 당 학점수(3시간 3학점) 등 교과 운영 방식 유연화
	6-3. 기초교양교육에서 학점 부여 시기, 능력별 필수 학점 수 등 학사 체계 유연화
	6-4. 기초교양교육에서 학생의 개별화, 맞춤형 교육 증가
	6-5. 기초교양교육에서 평가방법(절대평가/상대평가 등)에 대한 교수의 선택권 증가
7. 기초교양 교육 질 관리 확대	7-1. 기초교양교육에서 질 관리(학습성과, 표준화 등) 요구 강화
	7-2. 대학평가가 기초교양교육의 방향과 체계에 미치는 영향 증가
	7-3.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대학의 투자 확대
8. 기초교양 교육에 대한 학생 요구 변화	8-1. 기초교양교육에서 학생의 과목 개설요구 및 내용 선택권 강화
	8-2. 학생의 요구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는 방식(봉사, 실습, 연구, 프로젝트, 세미나 등) 다양화
	8-3. 비교과 교육이 학점이 부여되는 형태로 전환
	8-4. 기초교양교육을 보완하는 비교과 교육 확대
	8-5. 지역사회(일반인, 졸업생 등)에 평생교육 관점에서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요구 확대

2. 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대학에 미칠 영향력

1) 8개 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대학에 미칠 영향력 비교

하위 요인을 평균하여 8개 요인의 발생/변화 가능성과 실제 대학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수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내용타당도($\geq .312$)가 적절하고, 교수들의 의견이 수렴되고($\leq .5$), 합의되며($\geq .5$),

긍정 응답(4, 5점) 수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16명 이상)인 경우, 결과 항목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는 의미로 ‘일치’라 판별하였다. 덧붙여, 항목 평균의 값이 4점(크다) 이상인 요인은 셀을 진하게 표시하였다.

그 결과, 전담기관 소속 교수들이 변화/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합의한 항목은 ‘학생 특성 변화’가 유일하였다. 소속된 교양교육 전담기관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학생 특성 변화’, ‘기초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교양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기초교양교육 질 관리 확대’ 등 4개였다. ‘온라인 교육의 확대’,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요구 변화’도 소속 대학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합의하기는 했지만, 그 값이 3.88, 3.97로 ‘크다(4.0점)’고 보지는 않았다.

〈표 3〉 8개 요인의 변화/발생 가능성과 소속 기관에 미칠 영향력

요인 및 하위 요인		긍정 응답자 (4,5)	항목 평균	표준 편차	내용타당 도 CVR (≥.312)	수렴도 (≤.5)	합의도 (≥.5)	결과
변화/ 발생 가능성	1. 온라인 교육의 확대	13	3.52	0.812	-0.188	0.59	0.67	
	2. 학생 특성 변화	24	4.16	0.442	0.500	0.28	0.86	일치
	3. 기초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20	4.15	0.604	0.250	0.5	0.77	
	4. 교양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18	4.01	0.637	0.125	0.59	0.7	
	5. 교수 역할 변화	4	3.42	0.515	-0.750	0.33	0.82	
	6. 학사제도 유연화	13	3.57	0.711	-0.188	0.5	0.72	
	7. 기초교양교육 질 관리 확대	11	3.66	0.590	-0.313	0.33	0.82	
	8.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요구 변화	13	3.65	0.822	-0.188	0.5	0.72	
대학에 미칠 영향력	1. 온라인 교육의 확대	21	3.88	0.741	0.313	0.5	0.75	일치
	2. 학생 특성 변화	25	4.23	0.523	0.563	0.4	0.8	일치
	3. 기초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24	4.26	0.590	0.500	0.4	0.82	일치

요인 및 하위 요인	긍정 응답자 (4,5)	항목 평균	표준 편차	내용타당 도 CVR (≥.312)	수렴도 (≤.5)	합의도 (≥.5)	결과
4. 교양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26	4.21	0.606	0.625	0.34	0.84	일치
5. 교수 역할 변화	16	3.89	0.553	0.000	0.33	0.83	
6. 학사제도 유연화	18	3.88	0.624	0.125	0.48	0.76	
7. 기초교양교육 질 관리 확대	26	4.17	0.522	0.625	0.29	0.85	일치
8.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요구 변화	21	3.97	0.755	0.313	0.38	0.81	일치

2) 35개 하위 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대학에 미칠 영향력 비교

각 하위 요인을 동일한 기준(내용타당도 $\geq .312$, 수렴도 $\leq .5$, 합의도 $\geq .5$, 긍정 응답 16명 이상)으로 분석하고 교수들의 의견이 일치되었을 경우 결과 항목에 ‘일치’로 판별하고, 항목평균 값이 4점(크다) 이상인 경우 셀을 진하게 표시하였다. 총 35개 하위 요인 중 변화/발생 가능성에 대해 교수들의 의견이 일치된 요인은 16개였으며, 이 중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된 것은 14개였다. 교양교육 전담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교수들의 의견이 일치된 요인은 24개였으며, 이 중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된 것은 19개였다.

‘온라인 교육의 확대’의 하위 요인 중 전담기관 소속 교수들의 인식이 일치한 항목은 변화/발생 가능성에서는 없었다. 대학에 미칠 영향력 중 블랜디드 러닝의 확대(1-1)와 전면적인 원격수업 과목 증가(1-2)에 대해 일치하였고, 그 중 블랜디드 러닝의 확대(1-1)만 4.0점 이상으로 영향이 ‘크다’고 인식하였다. 각 대학마다 온라인 교육 정책에 따라 교수들의 수용과 인식 정도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설문을 진행한 A대학교에서는 블랜디드 러닝에 대해서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학생 특성 변화’의 경우 변화/발생 가능성과 향후 대학에 미칠 영향력에서 모든 하위 항목에 교수들의 인식이 일치하였으며, 가능성과 영향력도 큰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입학생의 학습능력 차이(2-1), 입학생의 기초학력 저하(2-2), 학생의 구성과 특성의 다양화(2-3), 외국인 학생 비율이 증가(2-4), MZ세대 학생들의 교육요구 변화(2-5) 등 모든 하위 요인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기초교육 필요성과 요구’에서 외국어(3-2)를 제외한, 글쓰기(3-1), SW(3-3), 수학/과학(3-4)의 필요성과 중요도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이고, 학생의 수준에 따른 교수방법 변화(3-5)와 기초교육과 전공교육 연계 요구(3-6)도 커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것이 소속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글쓰기(3-1)와 외국어(3-2)의 경우 교수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지만, 이를 제외하고 다른 하위 요인들은 대학에 미칠 영향력도 크다고 인식되었다.

‘교양교육 필요성과 요구’에서 교양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4-3)과 융복합 교양과목에 대한 증가(4-4)와 관련하여 변화/발생 가능성과 대학에 미칠 영향력은 크다고 인식되었다. 반면,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높아질 가능성(4-1)은 향후 크지 않지만, 이것이 소속 대학에 미칠 영향력은 크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교양교육 연구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교양교육의 보편성 및 학술성에 대한 요구(4-2)는 향후 높아지기 어렵고 대학에 미칠 영향력도 크지 않다고 보았다.

‘교수 역할 변화’에서 향후 교수들이 지식의 전달자에서 안내자로 역할이 확대(5-1)될 가능성에 동의하였으나, 이것이 대학에 미칠 영향력은 크다고 인식하지는 않았다. 교수의 역할이 교육 외 부분으로 확대(5-2)되거나, 교수의 신분과 지위가 개선/안정(5-3)되는 것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5-3의 교수 신분 개선의 변화/발생 가능성은 2.78점으로 3점(보통) 이하로 기대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제도 유연화’의 하위 요인 중 교수들이 변화/발생 가능성과 대학에 미칠 영향력이 높다고 동의한 것은 개별화, 맞춤형 교육의 증가(6-4)였다. 그 외에 수업이나 강의의 교류(6-1), 교과 운영 방식의 유연화(6-2), 학사

체계 유연화(6-3), 평가방법의 교수 재량권 확대(6-5)에 대해서는 변화/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지 않았다. 다만, 교과 운영 방식의 유연화(6-2)나 학사 체계 유연화(6-3)가 도입될 경우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4점)는 않지만 유의미할 것이라는 생각이 일치하였다.

‘기초교양교육 질 관리 확대’의 하위 요인 중 대학평가의 영향력(7-2)은 변화 가능성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큰 것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학습성과나 표준화 등의 질 관리 요구(7-1)나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대학의 투자 확대(7-3)는 변화/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은 클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가능성(7-3)은 2.94점으로 ‘보통(3점)’이 되지 않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요구’의 하위 요인 중 비교과 교육이 학점이 부여되는 형태로 전환(8-3)되거나, 기초교양교육을 보완하도록 확대(8-4)된다면, 이는 소속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데는 일치하지 않았다. 학생의 과목 개설 요구나 선택권 강화(8-1), 학점 취득 방식의 다양화(8-2), 평생교육 관점의 기초교양교육 확대(8-5) 등도 변화/발생 가능성과 대학에 미칠 영향력이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표 4〉 35개 하위 요인의 요인의 변화/발생 가능성과 소속 기관에 미칠 영향력

요인 및 하위 요인		긍정 응답자 (4,5)	항목 평균	표준 편차	내용타당 도 CVR (≥.312)	수렴도 (≤.5)	합의도 (≥.5)	결과
1. 온라인 교육의 확대								
변화/ 발생 가능성	1-1. 기초교양교육에서 온라인과 교실수업이 융합된 블랜디드러닝이 확대될 가능성	23	4.03	0.933	0.438	1	0.5	
	1-2. 기초교양교육에서 전면적인 원격수업 과목이 증가할 가능성	12	3.16	1.110	-0.250	1	0.33	
	1-3. 기초교양교육에서 MOOC 등 교외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활성화될 가능성	16	3.34	1.004	0.000	0.5	0.71	

요인 및 하위 요인		긍정 응답자 (4,5)	항목 평균	표준 편차	내용타당 도 CVR (≥.312)	수렴도 (≤.5)	합의도 (≥.5)	결과
	1-4. 기초교양교육에서 수업에 에듀테크(AI, AR/VR,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적용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	18	3.56	1.134	0.125	0.5	0.75	
대학에 미칠 영향력	1-1. 기초교양교육에서 온라인과 교실수업이 융합된 블랜디드러닝이 확대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5	4.19	0.780	0.563	0.5	0.75	일치
	1-2. 기초교양교육에서 전면적인 원격수업 과목의 증가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2	3.81	0.896	0.375	0.5	0.75	일치
	1-3. 기초교양교육에서 MOOC 등 교외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의 활성화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2	3.78	1.039	0.375	0.88	0.56	
	1-4. 기초교양교육에서 수업에 에듀테크(AI, AR/VR,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적용 요구 증가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19	3.72	0.924	0.188	0.5	0.75	

2. 학생 특성 변화

변화/ 발생 가능성	2-1. 입학생의 학습능력 차이가 심화될 가능성	25	4.16	0.847	0.563	0.5	0.75	일치
	2-2. 입학생의 전반적인 기초학력이 저하될 가능성	25	4.06	0.801	0.563	0.5	0.75	일치
	2-3. 학생 구성(재직자, 편입생, N수 입학생 등)이 다양해질 가능성	27	4.16	0.767	0.688	0.5	0.75	일치
	2-4. 기초교양수업에서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	28	4.16	0.628	0.750	0.5	0.75	일치
	2-5. MZ세대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변화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	26	4.25	0.762	0.625	0.5	0.75	일치
대학에 미칠 영향력	2-1. 입학생의 학습능력 차이가 심화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8	4.25	0.672	0.750	0.5	0.75	일치
	2-2. 입학생의 전반적인 기초학력 저하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7	4.22	0.706	0.688	0.5	0.75	일치
	2-3. 학생 구성(재직자, 편입생, N수 입학생 등)의 다양화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5	4.19	0.780	0.563	0.5	0.75	일치
	2-4. 기초교양수업에서 외국인 학생의 비율 증가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30	4.38	0.609	0.875	0.5	0.75	일치

요인 및 하위 요인	긍정 응답자 (4,5)	항목 평균	표준 편차	내용타당 도 CVR (≥.312)	수렴도 (≤.5)	합의도 (≥.5)	결과
2-5. MZ세대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변화 요구가 증가가 교양교육기 관에 미칠 영향력	26	4.13	0.707	0.625	0.5	0.75	일치

3. 기초교육 필요성과 요구

변화/ 발생 가능성	3-1. 대학 기초교육으로서 글쓰기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증가할 가능성	26	4.09	0.856	0.625	0.5	0.75	일치
	3-2. 대학 기초교육으로서 외국어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증가할 가능성	20	3.78	0.906	0.250	0.5	0.75	
	3-3. 대학 기초교육으로서 SW의 필 요성과 중요도가 증가할 가능성	28	4.22	0.832	0.750	0.5	0.75	일치
	3-4. 대학 기초교육으로서 수학, 과 학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증가할 가 능성	25	4.22	0.870	0.563	0.5	0.75	일치
	3-5.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기초교 육의 필수학점 수, 교수방법(개별화 등)이 달라질 가능성	26	4.16	0.808	0.625	0.5	0.75	일치
	3-6. 기초교육을 전공교육과 연계해 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	28	4.41	0.712	0.750	0.5	0.8	일치
대학에 미칠 영향력	3-1. 대학 기초교육으로서 글쓰기의 필요성과 중요도 증가가 교양교육기 관에 미칠 영향력	24	4.06	0.914	0.500	0.88	0.56	
	3-2. 대학 기초교육으로서 외국어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4	4.09	0.777	0.500	0.88	0.56	
	3-3. 대학 기초교육으로서 SW의 필 요성과 중요도가 교양교육기관에 미 칠 영향력	27	4.16	0.884	0.688	0.5	0.75	일치
	3-4. 대학 기초교육으로서 수학, 과 학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교양교육기 관에 미칠 영향력	28	4.34	0.701	0.750	0.5	0.75	일치
	3-5.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기초교 육의 필수학점 수, 교수방법(개별화 등)이 달라지는 것이 교양교육기관 에 미칠 영향력	32	4.50	0.508	1.000	0.5	0.78	일치
	3-6. 기초교육을 전공교육과 연계해 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는 것이 교 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8	4.41	0.712	0.750	0.5	0.8	일치

요인 및 하위 요인		긍정 응답자 (4,5)	항목 평균	표준 편차	내용타당 도 CVR (≥.312)	수렴도 (≤.5)	합의도 (≥.5)	결과
------------	--	--------------------	----------	----------	--------------------------	--------------	--------------	----

4. 교양교육 필요성과 요구

변화/ 발생 가능성	4-1.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증가할 가능성	20	3.84	0.920	0.250	1	0.5	
	4-2. 교양교육의 보편성과 학술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	19	3.72	0.924	0.188	0.5	0.75	
	4-3. 교양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의 사소통, 분석력, 창의성 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	28	4.25	0.672	0.750	0.5	0.75	일치
	4-4. 교양교육에서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교과목이 늘어날 가능성 (강 의페어링 등)	27	4.22	0.706	0.688	0.5	0.75	일치
대학에 미칠 영향력	4-1. 대학에서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도 증가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8	4.38	0.707	0.750	0.5	0.78	일치
	4-2. 교양교육의 보편성과 학술성에 대한 요구 증가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5	3.94	0.914	0.563	0.38	0.81	일치
	4-3. 교양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의 사소통, 분석력, 창의성 등)에 대한 요구 증가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9	4.34	0.653	0.813	0.5	0.75	일치
	4-4. 교양교육에서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교과목(강의페어링 등) 증가 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8	4.19	0.645	0.750	0.5	0.75	일치

5. 교수 역할 변화

변화/ 발생 가능성	5-1. 교양교육기관 교수의 역할이 '지식의 전달자'에서 학습을 설계하 고, 유도하고, 지원하는 '안내자'로 확대될 가능성	27	4.09	0.689	0.688	0.5	0.75	일치
	5-2. 교양교육기관 교수의 역할에 대 한 요구가 교육 이외의 부분(비교과, 연구, 봉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	12	3.38	0.833	-0.250	0.5	0.67	
	5-3. 교양교육기관 교수의 신분과 지위가 개선/안정화될 가능성	7	2.78	0.941	-0.563	0.5	0.67	
대학에 미칠 영향력	5-1. 교수의 역할이 '지식의 전달자' 에서 학습을 설계하고, 유도하고, 지 원하는 '안내자'로 확대되는 것이 교 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5	3.97	0.740	0.563	0	1	일치

요인 및 하위 요인		긍정 응답자 (4,5)	항목 평균	표준 편차	내용타당 도 CVR (≥.312)	수렴도 (≤.5)	합의도 (≥.5)	결과
	5-2. 교수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교육 이외의 부분(비교과, 연구, 봉사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18	3.78	0.870	0.125	0.88	0.56	
	5-3. 교수의 신분과 지위가 개선/안정화되는 것이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2	3.91	0.996	0.375	1	0.5	

6. 학사제도 유연화

변화/ 발생 가능성	6-1. 대학 간에 기초교양 수업의 교류(공동개설 수업, 학점 인정 등)가 확대될 가능성	19	3.53	0.842	0.188	0.5	0.75	
	6-2. 기초교양교육에서 집중 이수, 시간 당 학점수(3시간 3학점) 등 교과 운영 방식이 유연해질 가능성	19	3.69	0.859	0.188	0.5	0.75	
	6-3. 기초교양교육에서 학점 부여 시기, 능력별 필수 학점 수 등 학사 체계가 유연해질 가능성	16	3.50	0.842	0.000	0.5	0.71	
	6-4. 기초교양교육에서 학생의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늘어날 가능성	22	3.84	0.847	0.375	0.5	0.75	일치
	6-5. 기초교양교육에서 평가방법(절대평가/상대평가 등)에 대한 교수의 선택권이 늘어날 가능성	10	3.28	1.023	-0.375	0.5	0.67	
대학에 미칠 영향력	6-1. 대학 간에 기초교양 수업의 교류(공동개설 수업, 학점 인정 등) 확대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1	3.84	0.920	0.313	0.88	0.56	
	6-2. 기초교양교육에서 집중 이수, 시간 당 학점수(3시간 3학점) 등 교과 운영 방식의 유연화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1	3.84	0.808	0.313	0.5	0.75	일치
	6-3. 기초교양교육에서 학점 부여 시기, 능력별 필수 학점 수 등 학사 체계 유연화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4	3.94	0.759	0.500	0.38	0.81	일치
	6-4. 기초교양교육에서 학생의 개별화, 맞춤형 교육 확대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6	4.13	0.707	0.625	0.5	0.75	일치
	6-5. 기초교양교육에서 평가방법(절대평가/상대평가 등)에 대한 교수의 선택권 확대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17	3.63	0.833	0.063	0.5	0.75	

요인 및 하위 요인		긍정 응답자 (4,5)	항목 평균	표준 편차	내용타당 도 CVR (≥.312)	수렴도 (≤.5)	합의도 (≥.5)	결과
7. 기초교양교육 질 관리 확대								
변화/ 발생 가능성	7-1. 기초교양교육에서 질 관리(학 습성과, 표준화 등)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	24	3.94	0.669	0.500	0.38	0.81	일치
	7-2. 대학평가가 기초교양교육의 방 향과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가 능성	28	4.09	0.588	0.750	0	1	일치
	7-3.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대학의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	9	2.94	1.014	-0.438	0.88	0.42	
대학에 미칠 영향력	7-1. 기초교양교육에서 질 관리(학 습성과, 표준화 등)에 대한 요구 강 화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31	4.22	0.491	0.938	0.38	0.81	일치
	7-2. 대학평가가 기초교양교육의 방 향과 체계에 미치는 영향 강화가 교 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7	4.09	0.641	0.688	0.38	0.81	일치
	7-3.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대학의 투자 확대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7	4.19	0.859	0.688	0.5	0.75	일치
8.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요구								
변화/ 발생 가능성	8-1. 기초교양교육에서 학생의 과목 개설요구 및 내용 선택권이 강화될 가능성	19	3.66	0.971	0.188	0.5	0.75	
	8-2. 학생의 요구에 따라 학점을 취 득하는 방식(봉사, 실습, 연구, 프로 젝트, 세미나 등)이 다양해질 가능성	22	3.84	0.987	0.375	1	0.5	
	8-3. 비교과 교육이 학점이 부여되 는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	14	3.41	1.043	-0.125	0.5	0.67	
	8-4. 기초교양교육을 보완하는 비교 과 교육이 확대될 가능성	18	3.53	0.983	0.125	0.5	0.75	
	8-5. 지역사회(일반인, 졸업생 등)에 평생교육 관점에서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가능성	22	3.81	1.030	0.375	1	0.5	
대학에 미칠 영향력	8-1. 기초교양교육에서 학생의 과목 개설요구 및 내용 선택권 강화가 교 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3	4.00	0.842	0.438	1	0.5	
	8-2. 학생의 요구에 따른 학점 취득 방식(봉사, 실습, 연구, 프로젝트, 세 미나 등)의 다양화가 교양교육기관 교육에 미칠 영향력	24	3.94	0.840	0.500	0.75	0.63	

요인 및 하위 요인		긍정 응답자 (4,5)	항목 평균	표준 편차	내용타당 도 CVR (≥.312)	수렴도 (≤.5)	합의도 (≥.5)	결과
8-3. 비교과 교육이 학점이 부여되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교양교육 기관에 미칠 영향력		26	4.00	0.718	0.625	0	1	일치
8-4. 기초교양교육을 보완하는 비교 과 교육의 확대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6	4.00	0.803	0.625	0.38	0.81	일치
8-5. 지역사회(일반인, 졸업생 등)에 평생교육 관점에서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요구 확대가 교양교육기관에 미칠 영향력		24	3.91	0.893	0.500	0.75	0.63	

3. 요인별 대응 방안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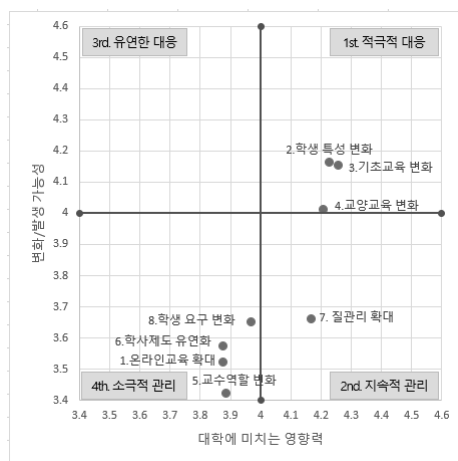
변화/발생 가능성과 대학에 미칠 영향력을 바탕으로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요인,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요인,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요인, 소극적으로 관리해도 되는 요인을 분류하였다.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을 x축으로, 변화/발생 가능성을 y축으로 놓고 총 8개의 요소를 4사분면에 배치한 후, 각 사분면의 특성에 따라 대학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순서를 정하였다. 1사분면에 변화/발생 가능성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높기에 대학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1순위 적극적 대응)으로, 2사분면은 변화/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관이 유연하게 대응해도 되는 부분(3순위 유연한 대응)으로, 3사분면은 변화/발생 가능성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낮기에 기관이 소극적으로 관리해도 되는 부분(4순위 소극적 관리)으로, 4사분면은 변화/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할 경우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2순위 지속적 관리)으로 규정하였다.

1) 8개 요인의 대응 방안 도출

8개 요인 중 변화/발생 가능성도 높고 대학에 미치는 영향도 큰 [1순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은 ‘학생 특성 변화’, ‘기초교양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교양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였다. 변화/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2순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은 ‘기초교양교육 질 관리 확대’였다. 변화/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3순위 유연한 대응]은 해당하는 것이 없었다. 변화/발생 가능성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모두 크지 않은 [4순위 소극적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온라인 교육의 확대’, ‘교수 역할 변화’, ‘학사제도 유연화’,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요구 변화’ 등이었다.

교양교육 전담기관 소속 교수들은 [1순위 적극적 대응]에 속한 요인들은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4순위 소극적 관리]에 속한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심각하거나 빠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는 아마도 전자가 비교적 수업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변화인 반면, 후자가 인프라나 제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쉽게 도입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8개 요인의 대응 전략 분석

2) 35개 하위 요인의 대응 방안 도출

하위 요인 중 [1순위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 14개, [2순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것은 8개, [3순위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1개, [4순위 소극적 관리]가 필요한 것은 12개였다.

‘온라인 교육의 확대’의 하위 요인을 4사분면에 배치한 결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항목은 블랜디드 러닝의 확대(1-1)였으며, 다른 하위 요인은 변화/발생 가능성이나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전면적인 원격수업 과목 증가(1-2), 교외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 활성화(1-3), 에듀테크 적용 요구 증가(1-4)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을 경우, 교수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로 인식되어 대응에 어려울 수 있어 보인다.

‘학생 특성 변화’의 하위 요인을 4사분면에 배치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기초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학생의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업에서 교수학습이나 상호작용을 진행할 때 당혹감 또는 곤란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초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하위 요인을 4사분면에 배치한 결과, 대부분의 변화에 대해 대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했던 교수들 중 상당수는 글쓰기, 외국어, SW, 수학/과학 등 기초교육을 담당했다. 이들은 향후 기초교육의 필수학점 수나 교수방법의 변화(3-5)가 나타나거나, 기초교육을 전공교육과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3-6)가 거세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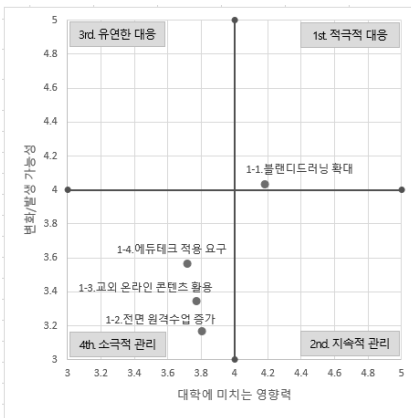
‘교양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하위 요인을 4사분면에 배치한 결과, 교양교육을 통한 역량 향상(4-3)과 융복합 교양과목에 대한 증가(4-4)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증가(4-1)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리가, 교양교육의 보편성과 학술성에 대한 요구 증가(4-2)에 대해서는 소극적 관리가 필요하였다. 연구가 진행된 A 대학교의 경우, 교양교육의 보

편성과 학술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수들은 이것의 가능성이나 영향력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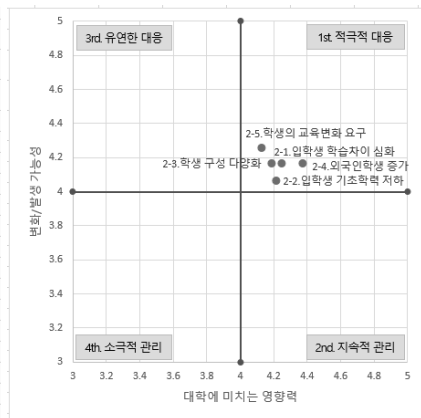
‘교수 역할 변화’의 하위 요인을 4사분면에 배치한 결과, 학습의 안내자로서 교수의 역할이 확대(5-1)될 것이라는 점에는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교육 외 교수 역할 요구(5-2)나 교수의 신분 변화(5-3)에 대해서는 해당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소극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제도 유연화’의 하위 요인을 4사분면에 배치한 결과, 개별화, 맞춤형 교육 증가(6-4)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였으며, 그 외 하위 요인에 대해서는 변화 가능성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정부나 대학의 정책에 따라 이러한 제도상의 변화가 갑자기 도입되었을 경우, 그에 맞는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초교양교육 질 관리 확대’의 하위 요인을 4사분면에 배치한 결과, 대학평가가 기초교양교육에 미치는 영향(7-2)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며, 학습성과나 표준화 등 질 관리 요구(7-1),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대학의 투자 확대(7-3)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리가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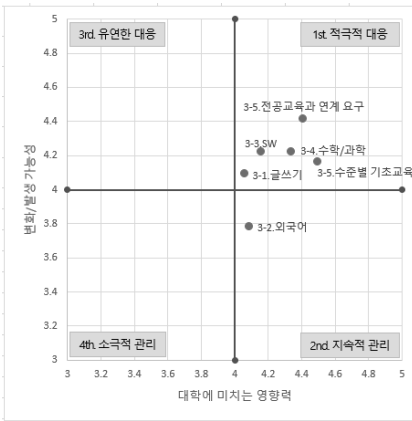


[그림 2] '온라인 교육의 확대'의 대응 전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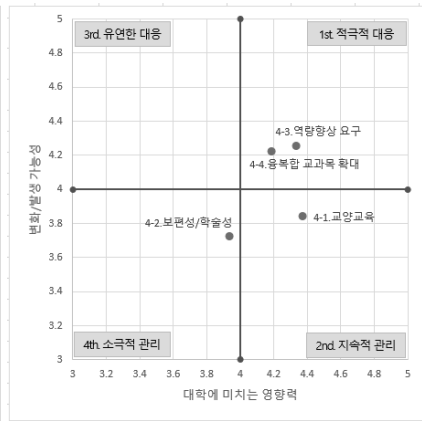


[그림 3] '학생 특성 변화'의 대응 전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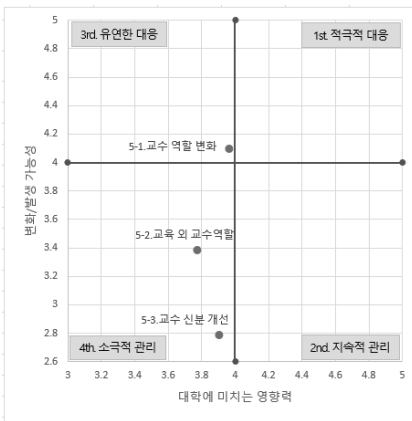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요구’의 하위 요인을 4사분면에 배치한 결과, 학생의 과목 개설 요구 및 내용 선택권 강화(8-1), 비교과 교육이 학점이 부여되는 형태로 전환(8-3), 기초교양교육을 보완하는 비교과 확대(8-4)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학점 취득 방식의 다양화(8-2)와 평생교육 관점에서 기초교양교육 요구 확대(8-5)에 대한 고려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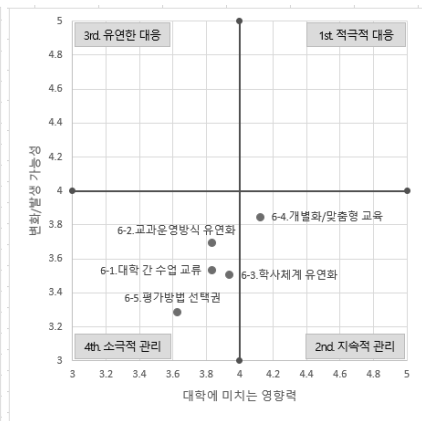
[그림 4] ‘기초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대응 전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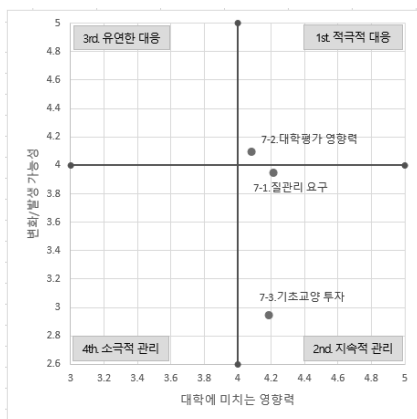
[그림 5] ‘교양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대응 전략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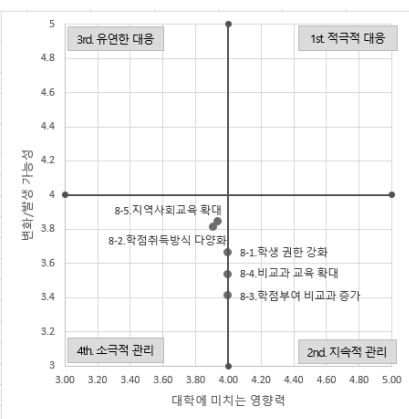
[그림 6] ‘교수 역할 변화’의 대응 전략 분석



[그림 7] ‘학사제도 유연화’의 대응 전략 분석



[그림 8] '기초교양교육 질 관리 확대'의 대응 전략 분석



[그림 9]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요구'의 대응 전략 분석

V. 논의 및 결론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교양교육이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조용하고 있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교양교육만 기존의 교육내용과 방식을 고수하며 '기본으로의 회귀(back to basics)'를 외칠 수는 없다. 교양교육 역시 대학을 둘러싼 변화를 주시하고, 그에 맞춰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미래 교양교육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수들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이다. 8개의 요인 중 '온라인 교육의 확대'와 '학생 특성 변화'가 환경 변화 요인이라면, '기초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교양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교수 역할 변화' 등이 교육 관련 요인이라 할 수 있고, '학사제도 유연화', '교양교육 질 관리 확대',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요구 변화' 등이 제도 및 인프라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미래 예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환경 요인이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이다. 선행연구의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에듀테크가 미래 대학에 적용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 반해,¹⁸⁾ 설문 결과에서 A대학 교수들은 블렌디드 러닝 외에는 도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와 인프라의 변화 역시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것에 비해¹⁹⁾ 설문 결과는 쉽게 도입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실제 교수들 간의 인식 차이는 대학이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자 할 때 갈등과 저항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체로 교수들은 각 요인들이 실제 나타날 변화/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보다 교양교육 전담기관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개방형 질문에서 ‘지난 10년 간 매번 크게 변화하고 위기라고 말했지만 (대학이) 생각보다 많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향후 10년도 변화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학평가가 기초교양교육의 방향과 체제에 미치는 영향의 증가(7-2)’를 가능성과 영향력 양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정부의 대학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대학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미래를 예측하는 이유는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²⁰⁾. A 대학 교양교육이 교수들이 예측한 바대로 변화한다면, 주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는 요인을 중심으로 대응하면 된다. 변화/발생 가능성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교수들 간의 의견 일치도도 높은 요인들로 ‘학생 특성 변화’, ‘기초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교양교육 필요성과 요구의 변화’ 등 3개 요인과 14개의 하위 요인이 포함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0년 뒤 기초교양교육의 변화를 간단히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10년 뒤 우리 대학은 외국인 학생을 비롯한 비동질적인 다양한 학생이 입학하며, 입학생 학습능력 차이가 심화하고, 기초학력이 전반적으로

18) 이두휴 외, 앞의 책, 2021; 권선아 외, 앞의 논문, 2018.

19) 변수연 외, 앞의 책, 2021.

20) 최항섭, 앞의 논문, 2012. 215쪽.

저하되는 등 학생 특성이 변화할 것이다. 학생의 수준과 환경,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수강해야 하는 기초교육의 학점, 교수학습 형태, 내용이 다를 것이다. 외국인 학생들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대학의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대학의 정책과 편의적 서비스로써 대학 교육을 바라보는 학생 간의 줄다리기 속에서 대학은 학생이 떠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MZ세대 학생들의 교육 변화 요구가 거세지며 물리적으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융합된 블랜디드 교육이 확대되고, 내용 면에서는 역량 개발을 위한 교양교육과 융복합 교양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대학 교수를 ‘지식’을 생성하고 전달하는 권위자로 인정하기보다 학생에게 학습을 안내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안내자’로 인식될 것이다. 대학평가의 지표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이 변할 것이며, 대학의 성과와 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이다.

8개의 요인과 35개의 하위요인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절차적 방법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미래의 변화가 급진적으로 나타난다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요인 외에, 지속적 관리, 유연한 대응, 소극적 관리가 요구되는 모든 요인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요인들은 변화/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대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기초교양교육 질 관리 확대’와 8개의 하위 요인이 해당되었다. 주로 대학에서 교양교육에 대한 필요도나 중요도가 강화되거나 투자가 확대되는 경우, 관련된 비교과 교육이 확대되거나 비교과에 학점이 부여되는 경우, 학생의 요구 수용이나 선택권이 강화되거나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증가되는 경우 등 교육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하위 요인은 하나였는데 교수의 역할이 안내자로 확대(5-1)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교수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었다. 소극적 관리에 해당하는 요인으로는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학생 요구 변화’, ‘학사제도 유연화’, ‘온라인 교육의 확대’, ‘교수 역할 변화’ 등 4개 요인과 12개 하위 요인이 포함되었다. 온라인 교육의 확대나 학사제도 유연화는 급격히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도입되었을 때 전담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리라 예상되었다.

급격한 변화에 근거하여 미래 기초교양교육의 변화 시나리오를 예상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나리오에서 주로 고려한 요인은 ‘온라인 교육의 확대’, ‘학생 특성 변화’, ‘학사제도 유연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투자(7-3)는 크게 늘지 않지만, 대학평가가 기초교양교육에 미치는 영향(7-2)이 커질 경우를 상정하였다.

10년 뒤 우리 대학은 외국인 학생을 비롯한 재직자, 편입생, 고령자 등 다양한 학생이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입학생 학습능력 차이 심화, 기초학력 저하, 개별화된 교육 요구 증가가 나타날 것이다. 다양한 유형의 비대면 교육이 확대되고, 교내외 온라인 콘텐츠가 수업에 적용되며, 다양한 에듀테크가 활용될 것이다. 대학에 방문하여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의 선택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협업이나 학생 간 활동, 교수의 지도를 받기 위해 학교를 방문한다. 학생의 수준과 환경,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수강해야 하는 기초교육의 학점, 교수학습 형태, 내용이 다를 것이다. 학생 별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서 같은 학과, 같은 전공이라도 실제 이수하는 내용과 분야가 다를 수 있으며, 대학에서 재학하는 기간도 학생마다 달라질 수 있다. 강의식의 교양교육은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의 개별 수준을 고려한 프로젝트형, 세미나형, 토론형, 글쓰기형, 융복합 교양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에듀테크의 발달로 교사의 역할은 ‘지식 전달자’보다 ‘안내자’로 변할 것이며, 수업과 학습과정의 기록이 가능해지면서 학습성과와 질 관리에 대한 대학의 책무가 강화될 것이다. 대학 간 다양한 수업 교류, 교과 운영방식의 유연화, 학사 체계 유연화 등이 이루어지고 학생의 개별화,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학생의 요구에 맞춰서 교육의 형태와 교수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미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예상보다 변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2023년 교육부는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

학 혁신'이라는 슬로건으로 학사제도 유연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학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양교육의 미래를 숙고하기보다 다시금 외부의 압력에 의해 교양교육에 대한 혁신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교양교육이 학술성과 보편성을 유지하며, 대학 구성원의 동의를 얻으며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 전담기관이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미래 비전이 현재의 교양교육 시스템을 유지·개선하는 것이든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든 간에²¹⁾ 교양교육 전담기관이 합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수들이 대학의 환경 변화나 교양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요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강의전담', '교육전담' 등 특정 교과목의 담당 교수로 역할을 한정하고, 대학 안팎의 여러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학문적 기반이 다른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수들이 동일한 미래 비전을 갖기 어렵다²²⁾.

교양교육 전담기관 교수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것이 '교수의 신분과 지위가 개선/안정화될 가능성'과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대학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었다. 이는 교양교육 전담기관 소속 교수들이 처우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낮은 처우로 인해 교육 부분으로 한정된 임무를 부여받고, 그로 인해 대학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수업이나 교과와 관련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현재 교양교육 전담기관 소속 교수들이 처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초교양교육에 대한 대학의 투자와 전담기관 교수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함과 더불어, 이들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소속 교수들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 교육부의 대학 교육 정책 기조와 변화, 다른 대학교의 대응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교

21) 백승수, 앞의 논문, 2019, 19~23쪽.

22) 한송이 외, 앞의 논문, 2022, 47쪽.

양교육 전담기관 교수들 간에 공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교수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명제도 전공과 경험이 다른 교수에게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 A대학은 교양교육의 학술성과 보편성에 대해 꾸준히 강조해왔음에도 전담기관 소속 교수들은 이것의 변화 가능성이나 대학에 미칠 영향력을 높게 보지 않았으며, 기초교육과 전공교육의 연계나 교양교육에서 역량의 강조와 같이 교육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학술성이나 보편성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유지할지, 기초교육과 전공교육의 연계 방안은 무엇인지, 역량 향상, 융복합 과목 개발 등 교양교육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 전담기관 소속 교수들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특정 대학에 소속된 32명의 제한된 교수들의 설문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양교육 전담기관 소속 교수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다양한 변인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많은 미래 분석 연구가 비판을 받듯²³⁾ 이 연구도 구체적인 미래 비전과 정책 제시로 연계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시나리오 기법 등 면밀한 미래 연구 방법론에 따른 교양교육의 미래 비전과 정책 개발이 지역, 규모, 특성이 다른 여러 대학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미래 연구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다가올 미래에 대한 행위자의 판단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²⁴⁾ 이 연구는 대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양교육 전담기관 소속 교수들의 미래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기대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미래 변화에 대한 준비도를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3) 최항섭, 앞의 논문, 2012, 211쪽.

24) 손현주, 앞의 논문, 2016, 18쪽.

참고문헌

- 강용주, 『텔파이 기법의 이해와 적용 사례』, 수시과제보고서, 08-20, 2008.
- 권선아 · 정혜령 · 양유정, 「4차 산업혁명기반 미래 대학 모형 연구: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8권 제9호,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543~552쪽.
- 류방란 · 김경애 · 이상은 · 한효정 · 이윤미 · 이종태 · 최항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 한국교육개발원, 2018.
- 박노진, 「중요도-실행도 분석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연구-온라인 수능강의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0권 제2호,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9, 329~338쪽.
- 백승수, 「제4차 대학 혁명과 교양교육의 미래」, 『교양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9, 11~29쪽.
- 백원영 · 민숙원 · 윤종혁 · 김영식,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혁신-교육과정과 노동시장 이행』,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19.
- 변수연 · 배상훈 · 이수정, 『변혁기, 미래 대학교육의 혁신과 발전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
- 서재영 · 김은영 · 우선영 · 임후남 · 조옥경 · 최정윤 · 이상은 · 한은정, 『뉴노멀 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치 탐색 연구: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21.
- 손현주, 「미래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시론적 연구」, 『미래연구』, 제1권 제1호, 미래학회, 2016, 15~35쪽.
- 유한구 · 김안국 · 조희경 · 주인중 · 엄미정 · 차성현,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전략』,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0.
- 윤승준 · 권준원 · 김수연 · 김지영 · 주현재 · 최예정,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9.
- 이두휴 · 오승용 · 송승훈, 『디지털 전환 대응 포용적 미래교육 거버넌스 구

- 축 방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
- 최동선 · 김남희 · 류지은 · 이상훈 · 임언 · 안현용 · 임정훈, 『미래 환경 변화에의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평생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1.
- 최항섭, 「미래연구의 이론과 방법」, 『한국사회』, 제13권 제1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12, 197~230쪽.
- 한송이 · 박상훈 · 이재창, 「교양교육 발전방향에 관한 교원의 인식 탐색」, 『교양교육연구』, 제16권 제6호,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22, 47~66쪽.
- 홍성연 · 이진희 · 신호재 · 이병훈 · 김진희 · 최용찬 · 이재원 · 오경희 · 김현진 · 신종호 · 안지연 · 이주미 · 황선영 · 서주영 · 강재필 · 강필승 · 김민주, 『기초교양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아주대학교, 2023.

접 수 일 : 2023년 08월 21일

심사완료 : 2023년 09월 13일

게재결정 : 2023년 09월 13일

Abstract

Analyzing Critical Influencing Factors on the Future of General Education: Perspectives from Faculty Members in General Education Institution of a University

Hong, Seongyoun(Ajou University)

Faculty in general education institutions play a crucial role in the improvement of general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Faculty perceptions about the future of general education could affect the content and quality of such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faculty from the general education institution anticipate the changes in undergraduate general education ten years from now. The seven faculty members identified the critical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future of general education, and 32 faculty member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at analyzed the likelihood of these changes and their potential impact on the university. As a result, eight factors and 35 sub-factors were identified. Among these eight factors, 'Changes in student characteristics' was the only one on which faculty agreed, indicating both a high likelihood of change and a significant impact on universities. There was also a consensus among faculty on points such as the expansion of online education, changes in the needs of basic education, changes in the needs of liberal arts education, the expansion of quality management for general education, and changes in student demands for general education. Among the 35 sub-factors, there were 16 factors on which faculty agreed regarding the likelihood

of change, with 14 predicted to be highly likely. Similarly, among the 24 factors on which faculty agreed regarding the likelihood of impact on the general education institution, 19 were predi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Changes in student characteristics, changes in the needs of basic education, and changes in the needs of liberal arts education were factors that require proactive responses, The expansion of quality management for general education was seen as requiring ongoing management. The expansion of online education, changes in faculty roles, flexible academic systems, and changes in student demands for general education were seen as factors requiring relatively passive responses. Finally,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general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added to the conclusion.

[Key Words] General education, General education institution, Future of general education, Higher education

